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핵심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박은영¹, 김원호^{2*}, 이관우³

¹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²울산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

³삼육대학교 대학원 물리치료학과

Factor Analysis of Core Values of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Eun-Young Park¹, Won-Ho Kim^{2*} and Kwan-Woo Lee³

¹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Jeonju University

²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Ulsan

³Dept. of Physical Therapy, The 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물리치료사 470명을 대상으로 미국물리치료사협회에서 개발한 물리치료 전문직관을 변안하여 이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고, 문항내적합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변안된 물리치료 전문직관 측정도구는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p < .05$), 7개요인(역할유연성, 이타주의, 동정/배려, 우수성, 도덕성, 전문가적 책무, 사회적 책무)으로 확인되었다. 구성요인의 표준화계수는 도덕성($\beta = .93$), 전문가적 책무($\beta = .92$), 동정/배려($\beta = .86$) 순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른 전문직관의 차이는 없었으나($p > .05$) 임상경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또한 전문직관은 문항내적합치도가 매우 높았다(Cronbach $\alpha = .80 \sim .96$). 변안된 물리치료 전문직관은 구성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물리치료 전문직관을 측정하는 도구로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instrument for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using developed by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for 470 physical therapists. The corrected data was analys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nternal consistency. Model of professionalism was adequate ($p < .05$) and consisted of 7 factors. Standardized coefficients of construct factor were followed by the integrity ($\beta = .93$), professional duty ($\beta = .92$), and compassion/caring ($\beta = .86$).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fessionalism by career($p < .05$) but not significant difference by sex($p > .05$). Also, the internal consistency for sub-factor of professionalism demonstrated adequate reliability of the measure (Cronbach $\alpha = .80 \sim .96$). Because instrument for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have a validity and reliability, it is useful for measuring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ists.

Key Words : Analysis of Core Values,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Validity

1. 서론

물리치료는 20세기 초반에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학문적 및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최적의 신체적

기능을 회복, 발달, 유지시키기 위하여 확립된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중재를 시행하는 직업전문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1]. 한국보건인력국가시험원은 물리치료사를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몸의 기능이상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건강과 기능을 증진시키는 직업전

*Corresponding Author : Won-Ho Kim (College of Ulsan)

Tel: +82-10-3218-0154 email: whkim@uc.ac.kr

Received August 28, 2012 Revised (1st September 14, 2012, 2nd September 21, 2012, 3rd September 24, 2012)

Accepted December 6, 2012

문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정의에서 나타나듯, 물리 치료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직무관련 지식, 기술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전문성이라 여겼지만, 최근에는 직무와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이 함께 고려된 전문직관을 중요시 하고 있다[3].

전문직관(professionalism)은 가치관과 행위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4]. 행위측면에서 전문직관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 및 기술,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하는 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역량을 중시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전문직관을 정의하기 위해 행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관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전문가적 의사결정과 행위의 지침이 되는 내적 동기 및 가치를 고려하여 각 분야별 전문직관을 정의하고 있는 추세이다[5].

미국소아협회[6]는 전문직관이 좋은 소아과 의사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라 규정하면서, 전문직관을 가르치고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출판하였다. 미국보건전문가협회[7]에서는 학생과 교육자들이 무엇을 전문직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전문직관의 영역 중 부족한 부분과 확인된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이 보고는 전문직관이 개별적 특성과 가치에 기초하지만 조직지원, 작업환경, 다른 사람들의 기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전문직관이 교육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전문직관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역할 모델링이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전문직관에 대한 교육과 평가까지 이루어진 다른 보건 의료 분야에 비해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전문직관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리치료 분야에서 전문직관은 환자 또는 의뢰인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책무, 태도, 행동을 의미한다[8]. 즉, 물리치료를 어떻게 보느냐를 뜻하는 것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관이 결합된 것이다. 전문직관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 분야인 경우, 전문직관은 간호사의 동기부여, 이직 감소, 업무수행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문직관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한상숙 등[9]에 의하면, 전문직관은 직무만족, 업무수행능력, 조직몰입과 순상관 관계를 보이고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과 역상관계가 있었다. 강현숙 등[10]은 간호사들이 전문직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간호업무를 하찮고 사소한 것으로 느끼며 이직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물리치료사 역시 이직률이 높은 경우로 보고되고 있는데, Harkson 등은 2년 이상 된 물리치료사의 73%가 2~5회 이직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1]. 전문직관과 이직

과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물리치료사의 전문직관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직관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 추세를 반영하듯 미국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 전문직관을 발표하였다. 핵심가치로서 역할유연성, 이타주의, 동정/배려, 우수성, 도덕성, 전문가적 책무,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였다[1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물리치료사인 경우 3년제 또는 4년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물리치료 관련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로서의 직업관이나 행동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고 않고 있다. 전문직관은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직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리치료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기여를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직관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물리치료 전문직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 전문직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직관의 구성 개념에 대한 검증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거나 보고되지 않은데서 찾아볼 수 있다. 간호의 경우 전문직관은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전문성, 실무역할, 그리고 독자성으로 구성되고 하였다[13]. Aquilar 등[4]은 호주 물리치료사인 경우 미국과 다른 전문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각 분야별 및 각 나라별 처한 상황에 따라 전문직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물리치료사협회는 전문직관을 개발하고 제시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타당성이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물리치료사협회에서 개발한 물리치료 전문직관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표준 변안과정에 따라 한글로 번안하고 번안된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고 향후 타 의료관련 직종 사이 전문직관을 비교하는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이 연구는 병원이나 공공기관 물리치료실에 근무 중인 물리치료사 4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5개월 이었다. 무응답자와 응답내용이 부실한 23명을 제외하고 447명이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평균 나이는 31.43세이었고, 임상경력 5년 이하가 68.9%, 6-10년이 20.8%로 나타났다. 근무기관으로는 병원과 의원이 가장 많았으며(43.8%),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에 분류된 기타(8.5%)가 가장 적었다. 주요 업무분야는 신경계(62.2%), 근골격계(26.8%), 심폐계(1.3%)순 이었고, 기타에는 근골격계와 신경계를 함께 하는 경우이었다.

2.2 측정도구

물리치료 전문직관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물리치료협회에서 제시한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핵심가치를 이용하였다[10]. 전문직관은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에는 최저 5개 항목에서 최고 12개 항목이 있으며, 총 6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각 항목은 1~5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는 최저 68점에서 최고 340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47)

항목		명(%)
성별	남	265(59.3)
	여	181(40.7)
업무분야	근골격계	120(26.8)
	신경계	278(62.2)
	심폐계	6(1.3)
	피부계	0(0.0)
	기타	43(9.6)
근무기관	대학병원	68(15.2)
	종합병원	92(20.6)
	병·의원	196(43.8)
	요양병원	53(11.9)
	기타	38(8.5)
임상경력	5년 이하	308(68.9)
	6-10년	93(20.8)
	11-15년	30(6.7)
	16년 이상	16(3.6)
나이(세)		31.43±5.33(22-52)*

*평균±표준편차(범위)

2.3 측정절차

물리치료 전문직관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물리치료사 협회에서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은 Beaton 등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14]. 먼저 영어를 한국어로 순번역하고 이후 한국어로 된 것을 영어로 역번안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과 교수 5인이 검토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15].

물리치료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얻은 후, 일반적인 특성과 번안된 물리치료 전문직관을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Table 2]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 전문직관		
영역	정의	항목 수
역할유연성	다양한 역할에 따른 책무에 대한 긍정적 사고	10
이타주의	자신보다 의뢰인의 요구를 우선하는 태도	5
동정/배려	의뢰인의 감정과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	11
우수성	개인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현재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려는 태도	11
도덕성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유지하려는 마음	12
전문가적 책무	효과적인 증재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려는 태도	7
사회적 책무	건강과 안녕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반응하려는 태도	12

2.4 분석방법

물리치료를 대상으로 번안된 전문직관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지수 추정에는 측정변수들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였다[16]. 모형 적합도 지수는 여러 지수들 중 χ^2 , 표준화 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교집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근사오차평균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값을 이용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해 AMOS(ver.17.0)를 이용하였다. SPSS(ver.17.0)을 이용하여 성별과 임상경력에 따른 전문직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직관 하위영역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내적합치도를 알아보았다.

3. 연구 결과

3.1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항목별 분포

성별로 전문직관을 알아본 결과, 남성과 여성의 전문직관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남녀 모두에서 사회적 책무와 이타주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역할유연성과 전문가적 책무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3).

3.2 임상경력에 따른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항목별 분포

연구대상자의 임상경력을 5년 이하와 5년 초과로 구분하여 경력에 따른 전문직관을 알아본 결과, 우수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외한 모든 항목과 총점에서 임상경력이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전문직관 점수가 높았다($p<.05$)(표 4).

[Table 3] Distribution of score of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by sex (N=447)

항목	남자 (n=266)	여자 (n=181)	p
역할 유연성	40.81±6.94	40.53±7.05	.680
이타주의	16.58±3.57	16.59±3.57	.979
동정/배려	41.88±7.33	42.06±7.46	.808
우수성	47.70±3.44	47.51±3.94	.596
도덕성	45.67±8.42	45.91±8.27	.764
전문가적 책무	27.25±5.18	27.30±5.18	.922
사회적 책무	39.51±10.83	39.95±10.46	.675
총합	258.95±38.15	259.59±38.51	.863

3.4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적합도 지수를 알아본 결과, χ^2 은 62.237이었고($p<.05$), 표준화 적합지수는 .973, 비교적합지수는 .978, 근사오차평균제곱근값은 .097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표6).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모수 추정치는 표 5와 같았다. 물리치료 전문직관에 대한 역할유연성의 표준화계수는 .80이었고, 이타주의는 .72, 동정/배려는 .86, 우수성은 .49, 도덕성은 .93, 전문가적 책무 및 사회적 책무가 각각 .92와 .77이었다.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확인된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Table 4] Distribution of score of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by clinical career (N=447)

항목	5년 이하 (n=308)	5년 초과 (n=139)	p
역할 유연성	39.91±7.01	42.63±6.45	.000
이타주의	16.37±3.64	17.13±3.37	.039
동정/배려	41.31±7.40	43.50±7.07	.004
우수성	47.56±3.54	47.92±3.71	.347
도덕성	45.26±8.20	47.01±8.60	.044
전문가적 책무	26.89±5.04	28.21±5.33	.014
사회적 책무	39.17±10.57	41.13±11.00	.080
총합	255.94±37.61	267.52±38.56	.004

[Table 5] Index of model fits of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χ^2	NFI	CFI	RMSEA
62.237*	.973	.978	.097

* $p<.05$

NFI : 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3.5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문항내적합치도를 이용해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표 6), Cronbach $\alpha = .80\sim.96$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무가 .96으로 가장 문항내적합치도가 높았으며 이타주의가 .80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문항의 문항내적합치도는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6] Regression weights of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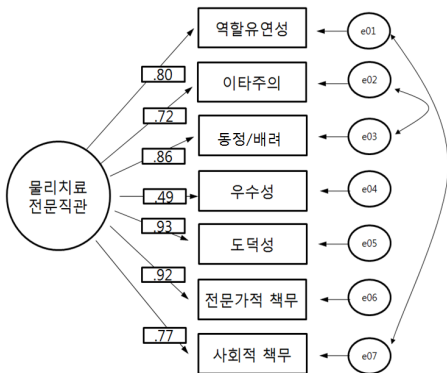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임계값
역할유연성→전문직관	1.00	.80		
이타주의→전문직관	.46	.72	.03	16.61*
동정/배려→전문직관	1.13	.86	.05	21.14*
우수성→전문직관	.32	.49	.03	10.69*
도덕성→전문직관	1.39	.93	.06	23.74*
전문가적 책무→전문직관	.85	.92	.04	23.42*
사회적 책무→전문직관	1.48	.77	.09	16.42*

* $p<.001$

4. 논의 및 고찰

건강관련 전문직업인으로서 물리치료사의 전문직관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국내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문직관의 구성을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통적으로 의료관련 인력의 전문직관은 수월성, 리더십, 변혁과 같은 것이 핵심가치였으나, 최근에는 환자중심, 책무성과 같은 것이 새로운 핵심가치로 등장하고 있다[17]. 전문직관은 주변의 사회, 기관, 문화, 그리고 정치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18-19]. 즉, 개인이 전문가로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설정하게 되는 가치관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20]. 다른 나라에서 보고된 전문직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당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Fig. 1] Identified Path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s)

[Table 7] Internal consistency of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문항수	Cronbach α	95%신뢰구간
역할 유연성	10	.93	.91-.93
이타주의	5	.80	.76-.80
동정/배려	11	.94	.93-.94
우수성	11	.84	.81-.84
도덕성	12	.92	.91-.92
전문가적 책무	7	.93	.91-.93
사회적 책무	12	.96	.95-.96
전체 문항	68	.98	.97-.98

요인분석에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잠재적인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미 드러나 있는 요인들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된 척도가 다른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구성개념을 가진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할 때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물리치료사협회에서 제시한 7개 요인으로 구성된 물리치료 전문직관이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에게도 동일한 구성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요인의 타당성을 알아본 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21]. 물리치료 전문직관은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역할 유연성, 이타주의, 동정/배려, 우수성, 도덕성, 전문가적 책무, 그리고 사회적 책무)되었다. 구성 요인들의 표준화 계수의 크기는 도덕성, 전문가적 책무, 동정/배려, 역할유연성, 사회적 책무, 이타주의, 우수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직관을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도덕성과 전문가적 책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리치료분야에서 전문직관에 대한 국내 연구가 없어 의료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경우 전문직관은 전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역할, 간호의 독자성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보고되었다[13]. 최근 이영숙은 간호사의 전문직관으로 의사소통기술, 신뢰성, 팀워크, 리더십, 공감과 배려, 교육자적 능력, 역할 모델, 책임감, 능숙한 간호술, 전문성, 윤리강령준수, 자율성, 공정성, 문제해결능력, 지속적인 학습, 자기관리능력, 소명 의식, 교육적 준비, 동기부여, 인본주의적 가치관, 연구 활동이라고 보고하였다[22]. 2005년 영국의사협회에서는 정직, 열정, 이타심, 지속적인 개선, 수월성, 타 의료인들과의 협력을 핵심가치로 선정하였다[23]. 한편 유사 분야인 호주작업치료인 경우는 의뢰인-치료사 관계, 작업치료사로서 전문성 책무, 그리고 이타주의를 핵심 전문직관으로 보고되었다[4]. Lopopolo 등은 34명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텔파이 연구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핵심 전문직관으로 의사소통, 전문적 참여와 윤리, 스트레스 관리, 시간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24]. 국내 물리치료사인 경우는 역할유연성, 이타주의, 동정/배려, 우수성, 전문가적 책무, 사회적 책무가 전문직관의 핵심가치로 나타났다.

나라와 문화에 따라 전문직관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마다 전문직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지만, 유사점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가치인 윤리성과 이타주의는 모든 직종에서 핵심가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율성인 경우 간호 분야에서 전문직관의 한 요소로 제기되고 있지만, 작업치료와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사협회에서는 의학 전문직관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해야 할 요소로 자율성, 특권과 자기규제라고 하였다. 즉, 자율성 또는 자기규제와 같은 요소는 자칫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중심의 최근 가치와 상반된다고 여기고 있다.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특징 중 하나가 책무가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보건의료체제가 보다 복잡해지면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역할 수행이 기대되고 이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25].

이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전문직관 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임의로 설정한 임상경력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경력이 많은 치료사(5년 초과 경력)가 그렇지 않은 치료사보다 전문직관의 점수가 높았다. 간호사들의 전문직관은 실무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데[26], 물리치료사 역시 경력이 많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았다. 이는 이전의 다른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서 경력이 많을수록 임파워먼트[27]와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경우 총합의 평균평점이 3.67점이었고, 사회적 이익추구(4.14점)와 책임감(4.0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28]. 의사인 경우는 공평한 진료, 전문가적 책무, 이타주의 순으로 전문직관이 높았다[29].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물리치료 전문직관을 영역별 문항 수에 따라 평균평점으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총합의 평균평점은 3.82점으로 간호 분야와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영역별로는 우수성(4.33점), 역할유연성(4.07점), 전문가적 책무(3.90점), 배려/관심(3.82점), 도덕성(3.82점), 이타주의(3.32점), 사회적 책무(3.32점) 순으로 간호 분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전문직별로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내적합치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각 영역별 Cronbach α 값은 .80 ~ .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은 .98이었다. 일반적으로 .8 이상인 경우 좋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30]. 비록 문항수와 분야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간호직관인 경우 문항내적합치도가 .69에서 .76인 점을 감안할 때[28] 신뢰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임상경력이 5년 미만인 치료사가 68.9%로 높게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의 전문직관은 임상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 경력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전문직관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의사, 간호사, 특히 물리치료사들은 많은 시간을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높은 전문직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리치료분야에서는 전문직관의 구소요소 또는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국내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문직관의 구성을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물리치료 전문직관을 이용하여 국내 물리치료사의 전문직관을 알아보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7개 요인으로 구성된 물리치료사 전문직관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전문직관을 측정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차후에는 이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정규 교육과정 동안 얼마나 전문직관에 대한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

- [1] APTA.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 revisions.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Physical Therapy, Vol.79, pp.623-629, 1999.
- [2]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Job Analysis of Physical Therapy, Annual Publications 00B-10b, 2004.
- [3] R. Cruess, et al. "The professionalism mini-evaluation exercis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cademic Medicine, Vol.81, pp.S74-S78, 2006, [Article\(CrossRefLink\)](#)
- [4] A. Anguilar, et al. "Exploring professionalism: The professional values of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ists"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Vol.59, pp.209-217, 2012, [Article\(CrossRefLink\)](#)
- [5] R. L. Duque, Health promotion and the values of occupational therapy,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Bulletin, 2004.
- [6] American Board of Pediatrics, Teaching and Assessing Professionalism: A program director's guide, American Board of Pediatrics Foundation, NC, 2008.
- [7] Health Professions Council, Professionalism in Healthcare Professionals, Park House, London, 2011.

- [8] L. L Swisher, et al. "Factor analysis as a tool for survey analysis using a 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 as an example", *Physical Therapy*, Vol.84, pp.784-799, 2004.
- [9] S. Han, et al.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pp.73-70, 2008.
- [10] H. Kang, et al. "Reconstruc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2, pp.470-481, 2002.
- [11] D. G. Harkson, et al., "Factors related to job turnover in physical therapy", *Physical Therapy*, Vol.62, pp.1465-1470, 1982.
- [12]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Core Values*.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Alexandria, VA, 2003.
- [13] E. Yeun, et al.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pp.1091-1100, 2005.
- [14] D. E. Beaton, et al. "Guidelines for the process of cross-cultural adaption of self-report measures", *Spine*. Vol.25, pp.3186-3191, 2000., [Article\(CrossRefLink\)](#)
- [15] Y. Choi, et al. "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London handicap sca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1, pp.5102-5109, 2011, [Article\(CrossRefLink\)](#)
- [16] L. Choi. *Structure Equation Modeling*, Seoul, Muyok Publishers, 2006.
- [17] G. S. Meyer. "The evolving health care market: Professionalism and value at the envelope's edge", *Nutrition*, Vol.12, pp.285-286, 1996, [Article\(CrossRefLink\)](#)
- [18] M. A. Martimianakis, et al. "Sociological interpretations of professionalism", *Medical Education*, Vol.43, pp.829-837, 2009, [Article\(CrossRefLink\)](#)
- [19] R. M. Watson, "Being before doing: The cultural identity (essence) of occupational therapy",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Vol.53, pp.151-158, 2006, [Article\(CrossRefLink\)](#)
- [20] J. Shin, et al. "Development of a goal questionnaire for engineering exper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6, pp.353-376, 2012.
- [21] J. D. Finch, et al.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31, pp.439-485, 1997, [Article\(CrossRefLink\)](#)
- [22] Y. Lee, *An Analysis of the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ased on Delphi Techniqu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011.
- [23] Royal College of Physicians, *Doctors in Society: Medical Professionalism in a Changing World-report of a Working Party*, December, 2005.
- [24] R. B. Lopopolo, et al., "Leadership, administration, management, and professionalism (LAMP) in physical therapy: A delphi study. *Physical Therapy*", Vol.84, pp.137-150, 2004.
- [25] Y. Hur, *An analysis of the core elements and curriculum evalu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6.
- [26] Y. Kwon, et al.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pp.285-292, 2007.
- [27] J. Shim, et al.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physical therapists", *Physical Therapy Korean*, Vol.15, pp.70-79, 2008.
- [28] S. Ko, et al.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pp.335-346, 2004.
- [29] E. G. Campbell et al. "Professionalism in medicin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of physician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Vol. 147, pp. 795-802, 2007.
- [30] J. C. Nunnally, et al,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New York, 1978.

박 은 영(Eun-Young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이학석사)
- 2007년 2월 : 공주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특수교육, 직업재활

김 원 호(Won-Ho Kim)

[정회원]



- 1998년 8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이학석사)
- 200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물리치료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건의료, 물리치료

이 관 우(Kwan-Woo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울산대학교 체육학과 (공학석사)
- 2010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물리치료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보건의료, 물리치료